

요셉의 두 번째 결심

오늘 복음은 요셉이 두 번의 결심을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은 성모님과 파혼을 결심합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같이 살기도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나자 그는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 요셉은 마리아를 쫓아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법은 율법을 말하며 그 법대로라면 파혼의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일을 세상에 드러낼 경우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를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마리아에게도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이 세상의 문턱에 와 계신 메시아, 태중의 아기 예수님에게도 또 하나의 절박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천사의 말을 듣고 성모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성모님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믿어 자신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였지만, 요셉 역시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으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으며, 태중의 아기 예수님을 보호함으로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협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이 하느님의 계시가 내리는 곳이라 믿어 왔습니다. 요셉도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이러한 꿈의 계시를 통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결심은 순수한 그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에 파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심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훌륭한 결심입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이 세상이 모두에게
'내 세상'이 되도록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한때 복싱 동양 챔피언까지 지냈던 김조하는 폭력 사고로 물의를 일으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잡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진 것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삶의 역경은 엄청나지만, 전설적 복서의 말을 삶의 신조로 삼아 버텨 냅니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 무하마드 알리.

그에게도 당연히 피를 나눈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그에게 해준 가족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 폭력이 심하였고 지금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혈연으로는 가족이지만 심정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그러질 못했고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마흔에 조하는 우연히 어머니를 만납니다. 오갈 데 없던 그는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으로 어머니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폐가 있는 동생 진태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나름 가족의 따뜻함을 조금씩 느껴가던 조하는, 결정적 순간마다 동생을 더 챙기는 어머니의 행동과 불쑥

불쑥 내뱉는 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저, 돈 좀 생기는 대로 나갈게요. 그리고, 나한테 신경 써서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되게 불편해요 그게. 나도, 못되게 굴고 그러는 거 하기도 싫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갈게요.

조하는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제안을 떠올리며 캐나다로 떠나려 합니다. 어머니가 큰 병을 얻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이곳을 떠나는 데 미련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어머니를 찾아가 떠날 것을 알립니다.

조하야, 나는 미워해도, 진태는 미워하지 마라. 나 죽으면 가, 복지시설 들어갈까. 한 번씩, 가, 죽었나 살았나 궁금할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했다. 니 속은 못 들다보고, 내가 이래, 이기적이다.

왜 나 안 데려갔어요? 평생 나 혼자 살았어요. 중학생짜리가 혼자 밥 먹고, 아버지 술 마시고 들어오면 혼자 만화방에서 자고, 혼자 운동하고, 그땐 나도 아직, 애였다구요. 캐나다 가면, 여긴 다신 안 돌아올 거예요. 난요, 아버지 엄마 둘 다, 용서가 안돼요. 다신 안 와요. 여긴 진짜, 진짜 X 같아요.

조하야, 내 다시 태어나면, 니만 챙기께. 니하고만 살까. 내 몬해준 거, 다해주께. 미안하다.

가족의 품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조하, 그러나 울며, 가족의 인연을 놓기로 합니다. 떠나는 날, 공장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피아노 갈라쇼를 준비 중인 동생의 인터뷰를 봅니다.

불가녕,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뿐이다. 무하마, 드알리.

오진태군의 형이 늘 들려줬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조하는, 자신에게 가족이 있음을, 자신도 가족의 일원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가족을 통해, 자신이 버릴 뻔한 '여기'에서의 삶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나를 버렸던 여기 이 세상이, 이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너무나 살고 싶었던 그리운 세상입니다.

슬픔의 눈물로 여기를 떠나려 했던 그는 동생의 피아노 연주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큰아들로서 치룹니다. 이제 그는, 자폐증으로 조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나의 세상, 동생의 세상을 하나로, 우리의 세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훌륭한 연주를 했음에도 입상하지 못한 진태를 갈라쇼에 포함시키라는 요구에 관계사는 거절하려 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겠습니까?

날 합리적인 사람으로 봤니? 30년 넘게?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면, 개뿔 족보도 없는 거지깡깡이 촌놈(너)을 학원 만들어서 앉혔겠니?

수많은 이들이 낙인이 찍힌 채, 세상에서 소외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세상 안으로 끌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내 세상'을 선물하셨습니다. 죄 많고, 몸쓸 병이 있고, 이방인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함께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인이니 교회에 올 자격이 없다, 문제가 많으니 쓴소리 들어라,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고 시키려 드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성사이신 그리스도, 하느님을 삶으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전해 들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 이 세상이 모두에게 '내 세상'이 되도록, 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끌어안고, 서로의 하나됨을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가 공동체의 가족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라는 세상을, 교회가 서 있는 이 세상을, 자신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회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 없어. 찾아 헤맨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 들국화.



제 1 독 서	이사 7:10-14
화 답 송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 2 독 서	로마 1:1-7
복 음	마태 1:18-24

주일 진례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간부연수

청소년국(국장: 이정림 신부, 청년부 담당: 이동진 신부, 주효상 신부)에서 주관하는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간부연수'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연수는 15개 본당, 3개 제단체 소속의 간부 30명이 참석했으며, 감정나눔 프로그램과 주교님과 함께하는 대화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 오후에 모인 청년 간부들은 감정나눔 프로그램에서 서로의 힘든 점을 나누며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저녁에 배기현 교구장 주교와 청년들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삶의 고민들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둘째 날 오전에 청년들은 연수를 마치며 느낀 점, 본당과 교구에 바라는 점을 서로 나누고, 이를 파견미사 때 발표하였다. 파견미사는 배기현 주교와 청년담당 신부 7명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청년들의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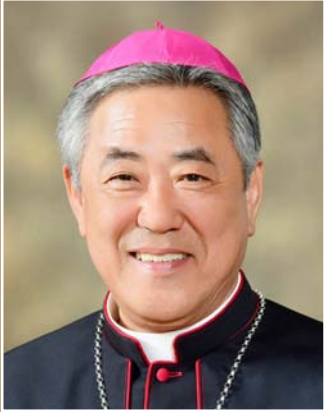
-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과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 교회 안팎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위로받고 힘을 얻었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같이 힘들다는 생각에 의지가 되고 간부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주교님께서 편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고, 우리의 고민과 처한 상황을 알고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주교님과 소통하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과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 주교님의 말씀 중에 불안함에 관한 이야기가 와 닿았고, 주교님과 함께하는 연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회에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본당 어른신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좌신부님이 안 계신 본당 청년회는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임신부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성탄을 경축하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영원하신 분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만물을 당신 안에 일으키시어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버림받은 인류를 하늘 나라로 다시 불러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아기 예수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

사랑하는 우리 교구 모든 분들이 주님 성탄의 은혜로 평화와 기쁨을 가득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탄 대축일 밤 미사에서 우리는 루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북부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의 한 어린 처녀가, 로마 황제의 호구조사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삭의 몸으로 지아비의 본적지인 남쪽 유다지방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해산날을 맞게 되었는데 몸을 풀고 아기 누일 방 하나 구하지 못해 결국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짐승의 먹이통에 넣었습니다. 이 가련한 이야기가 우리가 ‘주님’(퀴리오스 Κύριος)이라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모습이고 아울러 이 죄 많은 세상에 ‘기쁜 소식’(복음: 에우안겔리온 εὐαγγέλιον)이 시작되는 첫 장면입니다.

루카 복음의 이 대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안에는 묘하게 숨겨진 커다란 대비(對比 contrast)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루카 2,1)

고대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쳐 이기고 패권을 잡은 후 왕이 자신을 처음으로 황제로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진시황제라 했듯이, 서양 지중해 패권왕국 로마 역시 죽이고 죽이는 권력다툼 끝에 최후의 승자가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Augustus 지존 至尊)라 부르며 시황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 죽이고 죽이는 권력다툼 끝에 쟁취한 최고(最高)의 자리에 앉은 절대자를 뜻합니다. 실제로 황제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를 ‘주님’(Κύριος)이라 부르며 거의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또한 황제의 이름으로 임명된 사령관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소식을 황제의 이름으로 알렸는데 그것을 ‘복음’(에우안겔리온 εὐαγγέλιο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렇게 몇 개의 용어를 통해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와 포대기에 싸여 짐승의 먹이통에 넣어있는 예수 아기를 날카롭게 대립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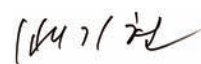
다. 최고의 자리에 앉은 황제는 무력으로 그 자리를 ‘쟁취’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누운 갓난아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황제는 ‘무력(武力)’을 사용하지만 갓난아기는 ‘무력(無力)’합니다. 황제는 무력(武力)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만 갓난아기는 무력(無力)을 통해 하느님을 드러냅니다. 옛말에 ‘왕은 하늘이 내려준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힘으로 자리를 쟁취한 자입니까, 하늘이 내려준 분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자입니까, 하느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분입니까?

이 대비를 통해서 복음사가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저 황제가 아니라 이 아기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는 황제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또한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이겼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기운을 받아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죄와 악에 대해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참된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여 자기를 드러내는 길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어 아버지 하느님을 드러내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작년과 올해 사목교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참된 자유의 원천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그것을 이루는 길은 용서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나라가 매우 위중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진정한 평화와 참된 자유를 주시라고 아기 예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성탄절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명예와 임무로 신심생활 다지는 주교좌 양덕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양덕동성당에 들어서서 우측으로 시선을 돌리면 두 개의 길이 보인다. 이른바 신의 영역으로 오르는 길과 인간의 영역으로 향하는 길이다. 한 길은 완만한 경사를 통해 산책하듯이 올라 성전에 이르는 길이다. 이 길이 만들어 내는 조형적 공간은 세상과 신성한 성전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이다. 돌아오르면 마주치는 대형 십자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우뚝 서 있고 그 곁에 바로 성전에 드는 문이 있다. 또 한 길은 회합실과 부속건물(현재 보좌사제관)로 향해 놓여있다. 안쪽에 다다르면 담장과 건물로 둘러싸인 작은 뜰이 안온함과 정겨움을 자아낸다. 처음 형태와는 달리 사제관을 덮었던 담쟁이덩굴도 이끼 낀 바닥의 벽돌도 없어지긴 했지만 남은 흔적으로도 짐작하는 느낌이 있다.



바위산에 핀 수정꽃

양덕동성당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주 찾아오는데 건축물 때문이다. 이름을 떨쳤던 고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건축학도라든지 건축연구자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건물을 만나러 방문한다.

1978년 11월 25일 헌당식을 할 당시 성당 주변 ‘반네들’이라 불리던 양덕들판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곳에 온통 붉은 벽돌로 지은 ‘바위산에 핀 수정꽃’ 같은 성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초대 주임신부 오스트리아 출신 박기홍 요셉 플라츠는 새 정전 건축의 사명을 받았다. 그분은 인간과 신의 만남을 한 공간에서 이루고자 ‘소박하면서도 우아하고, 단단하면서도 따뜻하며, 신비로우면서도 인간미가 풍기는’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김

수근 바오로 건축가는 그 간곡한 뜻에 따라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수직의 덩어리들과 건물하부의 깨진 벽돌을 쌓아 거칠고 강한 질감을 나타낸 작품을 오롯이 탄생시켰다. 40여 년이 지난 세월에도 주위의 많은 건물로 둘러싸여 그 모습을 쉽게 찾아내지도 못하게 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성당 건물도 누수를 막느라고 여기저기 보수공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처음의 자태가 모습을 달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가 55세에 세상을 떠나자 그가 남겨놓은 건축물에 대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작은 사람들을 귀하게 감싸는 보금자리

1975년 12월 본당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듬해 3월에 낙성식을 한 가톨릭여성회관에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가야 했다. 가톨릭여성회관이나 양덕동성당은 모두 오스트리아 그라츠교구의 지원을 얻어 지은 집이다 그 중심에 오스트리아 출신 하 마리아 관장과 박기홍 요셉 플라츠 신부가 있었다. 당시 마산은 수출자유지역으로 선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을 불러들였다. 양덕동은 수출자유지역과 한일 합섬이 가까운 곳이라 가난한 근로자들이 참으로 많았다. 전국각지에서 가족을 떠나 모여 온 어린 근



로자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곳이 절실히 필요했다. 가톨릭여성회관과 양덕동성당이 못다 배운 한을 풀 수 있는 길을 알게 했고 정서적 안정과 마음을 의지할 안식처가 되었다. 마산교구와 자매결연한 그라츠교구와 오스트리아 부인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그 정신을 새기며 소외된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두 기관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2년 반의 친밀했던 시간은 양덕동성당이 완공되면서 분리되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두 기관은 여전히 함께 사회를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자들조차도 성당인지 회관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외부사람들은 그냥 한 기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교좌 양덕동성당’의 이름으로 이루는 역사

예술적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바위산에 피는 수정꽃’ 성당 헌당식을 치른 다음해 양덕동성당은 마산교구 주교좌성당으로 인준되었고, 4월에 교구장 장병화 요셉 주교의 첫 공식방문이 이루어졌다. 1966년 마산교구설정으로 남성동성당에서 수행했던 역할이 1979년 2월 7일에 양덕동성당으로 옮겨왔다. 이제 주교좌성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양덕동성당 성전에는 장병화 요셉 주교좌가 1989년 2월까지, 박정일 미카엘 주교좌가 2000년 12월까지, 안명옥 F. 하비에르 주교좌가 2016년 5월까지, 그 이후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좌가 놓여 있다. 그 자리의 주인은 마산교구장이고 양덕동성당과 신자들은 4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명예를 누리고 있다. 물론 그 명예는 많은 임무를 동반한다. 그냥 제대 위 십자가상 아래 주교 문장이 있겠거니, 대축일이니 교구장이 방문하겠거니 하며 건성건성 바라보는 데서 그쳐서는 그 본분이 매우 부족하다.

장병화 주교의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자”, 박정일 주교의 “충성과 온유”, 안명옥 주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현재 교구장 배기현 주교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에 이르는 문장의 사목표어도 명심하며 깨어있어야 한다. 성전에 들어서면 늘 마주보는 자리이니, 자리 주인을 위한 기도가 쉽 없이 보태어진다.

양덕신자들은 권위 있는 자리를 가진 성당에 다니는 덕분에 조금씩 자부심을 가지고, 은근히 신심생활도 모범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한다. 교구의 각종 행사가 빈번히 열리고 교구 사제들이나 외부 사람들의 방문도 많으니,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쌓일 수 있지만 사랑으로 견디는 법도 안다. 불평을 하다가도 “주교좌성당이니까!” 하며 서로 격려하고 미소를 머금는다.

양덕동성당의 외양은 높은 아파트 숲에 묻혀 이제 낮아졌다. 반네들에 눈부시게 피었던 수정꽃도 가려졌다. 성전 공간도 좁아 큰 행사나 대축일에는 콩나물시루처럼 빼곡하여 답답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오래된 붉은 벽돌이 뿜어내는 품격처럼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품격을 갖춘 관록이 자리하고 있다.



일림



교구장 동정

견진성사

일시: 12월 22일(주일)

장소: 반송성당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

일시: 12월 24일(화) 20:00

장소: 고성 천사의 집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일시: 12월 25일(수) 10:30

장소: 양덕동성당

교구/본당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2월 기도모임

일시: 12월 23일(월)

성체조배 11:00, 13:00

미사 및 강의 13:40 (이청준 신부)

장소: 사파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전신자

문의: 010·3903·8234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접수: 19년 12월 9일(월)~ 20년 1월 3일(금)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복지관 소정 양식),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복지관 소정 양식),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불임)

모집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문의: 안선동 055·237·6485

명례성지 미사안내

송년감사미사: 12월 31일(화) 16:00

신년 해맞이미사: 1월 1일(수) 06:45

미사 후 떡국 나눔이 있습니다.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내용: 유덕현 아바스와 최재용 원장이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평신도 기도학교 (1년과정)

일시: 2월 넷째 주 15:00 개강

대상: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평신도 누구나

문의: 작은자매관상선교회 010·6626·7665

나자렛애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기 타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1일(월)~2020년 2월 7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대학원 음악학과 전기 2차 신입생모집

지원자격: 대학전공 무관

원서접수: 12월 24일(화)~2020년 1월 6일(월)

전공: 성악, 피아노, 관현악, 실용음악작곡, 지휘, 오르간, 피아노반주, 문화예술경영

문의: 053·850·3803

로사리오 기숙사생 모집

대상: 여대생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의: 02·741·3071/ 010·7740·071

2020학년도 꽃동네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충북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문의: 043·270·0100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정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입학상담: 053·850·2580

2020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보건복지교육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

호남지역 사립대 취업률 1위

모집학과 및 인원: 간호학과 10명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입학상담: 061·280·5108, 5150

2020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선발 '군': 18개 학교에서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선발

선발인원 및 원서접수 방법: 홈페이지 ipsi.cup.ac.kr 참조

입학상담: 051·510·0702(입학처 김중진 모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2월 1일</td> <td>이스라엘 요르단</td> <td>12월</td> <td>439 만원</td> </tr> <tr> <td>2월 10일</td> <td>유럽 3대 성모발현지</td> <td>13월</td> <td>395 만원</td> </tr> <tr> <td>2월 12일</td> <td>유럽 3대 성모발현지</td> <td>13월</td> <td>395 만원</td> </tr> <tr> <td>2월 13일</td> <td>이스라엘 이탈리아</td> <td>12월</td> <td>439 만원</td> </tr> </table> 분도여행사 02.852.8525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월	439 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월	395 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월	395 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월	439 만원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회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가톨릭신문투어 <table border="1"> <tr> <td>1/28</td> <td>유럽 성모발현지</td> <td>13일</td> <td>375만원</td> </tr> <tr> <td>2/15</td> <td>이탈리아 프랑스</td> <td>11일</td> <td>420만원</td> </tr> <tr> <td>2/16</td> <td>다낭 마카오</td> <td>6일</td> <td>145만원</td> </tr> <tr> <td>3/9</td> <td>발칸반도(베주고리에)</td> <td>12일</td> <td>355만원</td> </tr> <tr> <td>3/15</td> <td>서부지중해 크루즈</td> <td>10일</td> <td>399만원</td> </tr> </table> 02.2281.9070 www.cttour.org	1/28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75만원	2/15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420만원	2/16	다낭 마카오	6일	145만원	3/9	발칸반도(베주고리에)	12일	355만원	3/15	서부지중해 크루즈	10일	399만원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월	439 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월	395 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월	395 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월	439 만원																																				
1/28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75만원																																				
2/15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420만원																																				
2/16	다낭 마카오	6일	145만원																																				
3/9	발칸반도(베주고리에)	12일	355만원																																				
3/15	서부지중해 크루즈	10일	399만원																																				



일림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길, 마사, 기도, 강의)

일시: 12월 30일~1월 2일, 1월 6일~8일, 1월 31일~2월 2일,

2월 11일~13일, 2월 19일~20일, 2월 27일~29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제주 성지 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1/3-5, 2/26-28, 3/20-22, 3/24-26

장소: 제주성지7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순례: 20년 3월 2일 그리스, 터키 12일



송년 낮피정

주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4,16)

강사: 신상현(야고보) 수사

-세계성령봉사회(카리스 임원)

-한국성령채신봉사회 국제위원

-예수의꽃동네형제회부총원장

미사: 최재상(마티아) 신부

일시: 12월 30일(월) 13:00~17:30

장소: 반송성당

문의: 010·9421·3377/ 010·2585·8919

2020 천주교마산교구 사제서품식

일시: 1월 7일(화) 14: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주례: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 첫미사 |



서시문 시몬
진영성당
1월 9일(목) 19:30



조현석 엑스수페리오
석전동성당
1월 9일(목) 19:30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덕산동성당
1월 8일(수) 19:30



김동윤 율리아노
호계성당
1월 8일(수) 19:30

마산교구 평신도 신앙대학 제27기 모집

지원자격: 영세한 지 2년 이상 된 평신도로 본당 주임 사제의 추천을 받은 자(만 65세 이하)

교육기간: 2년 과정(1월과 8월은 방학) 매월 첫(토) 13:30~(주일) 16:00 1박2일

교육과정

2020년도: 교부학(최원호 교수), 교회법(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그리스도론(강철현 신부)

사회교리(박창균 신부), 성사와 전례(김정우 신부), 신약성경(정연우 신부)

2021년도: 교회론, 구약성경, 성령론·마리아론, 영성신학, 윤리신학, 철학

졸업특혜: 신앙대학 졸업장, 교리교사 자격증 발급

교육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모집인원: 60명(선착순)

지원마감: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개강일: 2020년 2월 1일(토)13:00(오리엔테이션 및 입학미사)

지원방법: 본당사무실에 비치된 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등록비: 교육관 숙박비 선택(2인실: 54만 원, 4인실: 44만 원)

등록안내: 접수마감 후 자택으로 '입학안내서신' 발송

보내실곳: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12월 23일(월) 19:00	월남동성당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이우진 신부(사도요한)	이우진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12월 23일(월) 19:00	반송성당	참행복	이준일(베드로, 성심원)	최재상 신부(마티아)	010·9421·3377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3/29, 4/20, 5/6(289만원) ◆ 이스라엘 9일 3/30(299만원) ◆ 이탈리아주 9일 3/12(27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트라피סט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민구 베네딕토 055.757.9888~9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49만원 (4월 3일, 인솔자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	--	--	---

전영택의 <크리스마스 전야의 풍경>에 담긴 신앙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화수분>으로 잘 알려진 전영택의 작품 중 <크리스마스 전야의 풍경>이라는 단편이 있다. 작가가 1960년도에 쓴 작품으로 그 내용은 이렇다. 주인공인 백인수 대위는 군대에서 군복 생활을 하다가 막 제대한 인물이다. 그는 성품이 곧고 솔직한 대신 사교성이 부족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특히 그는 속물적인 사람이나 사이비 신앙인을 잘 참아내지 못한다.

제대한 그즈음에 마침 그는 부유한 누이의 집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환멸감만 느끼고 파티장을 빠져나온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저희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성탄 전야를 즐기는 모습이 싫었기 때문이다.

누이의 집에서 나온 그는 근처의 방공호를 찾아간다. 그곳에는 가난한 할아버지와 꼬마가 살고 있었다. 불현듯 그는 이 불쌍한 꼬마에게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어 아이를 데리고 파티장으로 다시 간다. 그가 산타 분장을 하고서 주님의 선물이라며 흰 보자기 속에서 꼬마를 내어놓자 체면상 누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돈과 먹을 것을 싸주는 선심을 베푼다.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도 다 돌아간 밤, 이 집의 어린 딸 애경이는 밖에서 자꾸 누가 자기를 부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새벽, 그들은 대문 밖 담모퉁이에 눈에 덮힌 채 얼어죽은 작은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전날 밤 주님의 선물로 찾아왔던 그 꼬마였다. 무관심 속에 돌려보낸 아이가 그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추위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이 선물은 내가 가져왔다기보다는 주님 예수께서 보내신 것이다. 아니 주님이 친히 오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아이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한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은 크리스마스 파티장에 왔던 주인공 백 대위의 말이다. 이 목소리는 방공호에서 차가운 성탄을 보내는 불쌍한 아이를 돌아보라고 한다. 작가가 백 대위의 입을 빌려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따뜻한 저택의 파티장이 아니라 춥고 어두운 담벼락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을까.

오늘날에는 196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 풍요가 넘쳐흐른다. 그러나 여전히 그 풍요로움에서 제외된 이웃이 많다.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자는 말은 식상한 말일지 모른다. 그 식상함만큼이나 우리는 스스로 그 ‘의무’를 다 했다고 쉽게 믿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는 말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아이에게 돈과 과자를 들려보냈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를 ‘대접’한 것은 아닌 것이다.

